하나님의 필살검법의 세 가지 초식

(사무엘상 21:1~9)

1.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필살검법의 세 가지 초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필살검법의 세 가지 초식'

"필살검법"은 일단 한 번 꺼내면 반드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검법입니다. 이 말을 비유로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는 상황에 대해서 '필살'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필살기’라고 할 때에는 맘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반드시 유혹할 수 있는 연애의 기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필살기’라고 할 때에는 주식에 투자해서 반드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필살기’라면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삶의 필살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뜻하는바 목표에 적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쥐게 되는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필살검법은 검을 휘두르는 방법이 아니라 검을 손에 쥐는데 까지 필요한 과정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검법의 여러 가지 동작을 ‘초식’이라고 부르는데 제1초식, 제2초식, 제3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필살검법은 세 가지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초식을 배워서 익히고 필살기를 지닌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당시의 성막이 있었던 놉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제사장에게 떡을 받게 됩니다. 또 무기가 있느냐고 물어서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을 얻게 되며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살검법은 검을 휘두르는 방법이 아니라 검을 쥐기까지의 초식인데 올바른 세 가지 초식을 따라서 검을 제대로 쥔다면 필살검법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도피생활은 앞장 22절에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준비하신 길인데 이 필살검법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초식을 익혔고, 우리도 익히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장군이고 왕의 사위였고 유명한 용사였는데 ‘사울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혈혈단신으로 나타나자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사울로부터 도망쳤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은 이유를 제사장이 알면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염려해서 거짓말을 했고, 어떤 해석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비난 받을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에 본문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생각대로 거짓말에 근거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대로 인용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율법과 어긋난 행동을 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추궁하셨던 것처럼 살인이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윤리적 계명적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살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이기 위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는 거짓말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서들의 말처럼 제사장이 돕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절실했다면 장군의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하는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털어놓고 자기편으로 삼기 위해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있기만 한다면 설득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죽였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부당한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아직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사장이 머무는 놉 땅도 왕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자신을 통한 결렬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고, 자신이 사울로부터 도망한 것을 밝히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길에 제사장이 편승하게 되므로 이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의 연장으로 자신을 돕게 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거인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이 이제는 어엿한 장군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극복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이라도 자기편이 되어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하나님의 적으로 보고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필살검법의 첫 번째 초식입니다.
유적을 발굴하는 모습을 보면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유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필살검법의 첫 번째 초식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든 행동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것

입니다. 사울 왕의 행동이 보존되어야 될 유적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자아를 죽이는데 놀랍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상의 온갖 비난을 받는 다윗의 마음은,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든 존재와 지위와 행동과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항해서 제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마음도 없었고,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자질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함으로 왕과 제사장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필살권법 첫 번째 초식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유적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극복의 의지나 원망이나 푸념을 십자가로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식은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의 번제 시즌1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을 안식으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듯이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으로 배 부르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그것을 유적처럼 고스란히 보존하여 원망도 푸념도 하지 않는 대신에 마음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어진 환경의 사건과 상황에 몰입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은 유적처럼 내버려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음과 분함과 원통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인데 두 번째 초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삶의 활동을 중단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만족과 평강이 주어지고 안식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식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도망자의 과정에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먹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칫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유적처럼 보존하고 거기에서 채우지 않은 빈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기를 찾을 때에 마침 그곳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본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쥐게 된 것입니다. '칼을 쥐었다'는 것은 '삶의 환경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활동 할 단계가 되었지만 골리앗처럼 칼을 쥐면 망한다.'는 것인데 세 번째 초식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칼로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황이 극복된다든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나 내가 취하는 수단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은 행동을 취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골리앗의 칼 같은 수단이 됩니다. 돈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얻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이 칼을 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더니 돈이 많이 벌렸다든지, 전화를 했더니 교인이 마음을 돌려서 잘 나오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의 칼이 되는 수단이나 행동을 믿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초식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필살검법입니다. 이 필살검법의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축약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승천까지 따라서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행동과 생각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시며 그 뜻을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살검법의 세 가지 초식을 다윗은 10년 동안 익혀나가는 동안 우리도 이 초식을 익혀서 필살검법의 검사(劍士)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 가지 초식을 몸과 마음에 익힘으로서 필살검법의 검사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